

움라우트

박경래

세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 론

움라우트는 국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음운현상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그 개념이나 실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개념과 실체에 대하여 좀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움라우트가 일어나지 않은 ‘지팡이, 가랑이, 아지랑이’ 등은 표준어로 인정하고, 움라우트가 일어난 ‘지팽이, 가랭이, 아지랭이’ 등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움라우트에 대한 논의를 주로 방언, 특히 서울을 포함하는 중부방언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2. 움라우트의 범주와 개념

국어의 움라우트 현상이 적용되는 범주는 명사와 동사의 형태소 내부와, 주격이나 계사 ‘-이-’가 통합되는 형태소 경계에서다. 국어의 움라우트는 선행하는 음절의 후설 모음이 후행하는 음절의 ‘이’ 모음에 영향을 받아 전설모음화하는 음운현상으로서 국어에서는 전설고모음 ‘i’나 반모음 ‘j’에 의한 i-모음 역행동화

만이 인정된다. 예컨대, '아기'애기, 아버'애비, 어미'에미' 등에서와 같이 후설모음 'ㅏ'나 'ㅑ'가 후행음절의 전설고모음 'ㅣ'에 의하여 모음체계 상에서 각각의 짝이 되는 전설모음 'ㅕ'와 'ㅖ'로 바뀌거나 '꾸미'꾸미, '조끼'죄끼' 등과 같이 후설 원순모음 'ㅜ'나 'ㅡ'가 각각 전설 원순모음 'ㅠ'나 'ㅟ'로 바뀌는 현상이다. 따라서 움라우트의 피동화주는 모두 후설모음이다.

3. 움라우트의 시기와 범위

국어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은 18세기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 문헌에는 '익기논<앗기-[惜], 더리고<드리-[煎], 메진<머기-[食], 기다려<기드라-[待], 지팡이<지팡이[杖], 식기<삿기[煮], 식긴<스기-[割], 너리고<느라-[下]' 등 많은 예들이 나타난다. 뒷 음절의 모음 'ㅣ'에 의한 동화로 앞 음절의 ㅏ가 ㅕ로, ㅑ가 ㅖ로 변화한 이 현상은 국어사에서 대체로 18세기와 19세기의 교체기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ㅏ>ㅕ, ㅑ>ㅖ의 변화는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이었던 ㅕ[ay], ㅖ[əy]가 단모음화하여 당시의 모음체계에 전설모음 /ㅕ/(/ɛ/)와 /ㅖ/(/e/)가 존재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20세기에는 '소경'쇠경, 고기'괴기, '조끼'죄끼'와 같은 'ㅏ>ㅕ'의 움라우트가 실현되어 이 시기에는 'ㅟ(/ö/)'도 단모음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죽이다'꺾이다'와 같은 'ㅜ>ㅠ'의 움라우트는 현재까지도 일부 방언을 제외하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대국어 방언에서 'ㅏ>ㅕ'나 'ㅑ>ㅖ' 움라우트는 피동화주 모음에 'ㅅ, ㅈ'이나 'ㄷ, ㅌ' 등의 자음이 선행할 때 그 실현이 활발하지만 그 외의 다른 자음이 선행하거나 자음을 선행시키지 않을 때는 움라우트의 실현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다. 이와 같이 중앙어를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의 움라우트 현상은 'ㅣ ← ㅏ, ㅑ ← ㅕ, ㅕ ← ㅏ, ㅖ ← ㅑ, ㅖ ← ㅕ'와 같은 모음 대립을 이루어 국어의 최대 모음체계인 10모음 체계를 반영한다.

4. 움라우트의 조건과 제약

국어의 움라우트 현상은 남부 방언에서는 물론이고 중부방언에서도 형태소 내부에서의 형태소 경계에서 활발하게 실현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동화주 i

와 피동화주인 후설모음 사이에 자음이 개재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현된다. 이 때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개재되는 자음은 ‘하필>해필, 남비>냄비, 왕겨>앵겨, 막-히-다>매히다, 먹-히-다>매히다, 먹-이-다>매이다’ 등에서 보듯이 [-coronal]이나 [+grave]의 자질을 가지는 것이다. 즉 ‘ㅁ, ㅂ, ㅍ’ 등의 순자음이나 ‘ㄱ, ㅋ, ㆁ, ㅇ’ 등의 연구개자음이 개재될 때 활발하게 실현된다.

그러나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ㄴ, ㄷ, ㅌ, ㄸ, ㅅ’ 등의 치조음이나 ‘ㅈ, ㅊ, ㅍ’ 등의 구개음이 개재하는 경우에는 ‘가-니?→*개니?, 어디>*에디, 옷-이→*외시, 다시>*대시, 바지>*배지’ 등에서의와 같이 움라우트의 실현이 제약된다. 현대국어에서 움라우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모기, 거미’ 등이 움라우트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국어사적으로 볼 때 이들이 움라우트가 적용되던 시기에는 움라우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긔, 거미’ 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음 ‘ㄹ’이 개재하는 일부 어휘에서는 ‘나리다→내리다, 다리다→대리다, 버리다→베리다, 차리다→채리다’ 등에서의와 같이 방언에 따라 움라우트가 실현되기도 한다.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을 제약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음장이다. 앞에서 언급한 움라우트의 실현 조건인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순자음이나 연구개자음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피동화주의 모음이 음장을 가지고 있으면 ‘밤:-이→*뱀: 이[栗], 감:-이→*갸:이[柿], 곰:-이→*뿔:이[熊], 숨:-이→*쉴:이[呼吸] ; 농:-이→농:이~농이 중:-이→중:이~중이’ 등에서의와 같이 움라우트가 일어나기 어렵다. 장모음은 한 단어나 한 발음 단락의 첫 음절에서만 실현되고 용언의 경우는 어간에만 적용되는 규칙인데 모음어미 앞에서는 그 음장이 소거되기 때문에 주로 단음절어의 체언에서 관찰되는 것이지만, 형태소 내부에서는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음장이 개재하더라도 ‘소:경>쇠:경, 소:견>쇠:견’ 등에서의와 같이 피동화주 모음에 ㅅ이나 ㅈ 등의 자음이 선행할 때는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움라우트의 제약이 약화되어 움라우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어휘에서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치조음이나 구개음이 개재되어도 ‘말기다→만기다→막기다→매끼다, 쫓기다→쫘기다→쫑기다→쫘끼다, 안기다→앙기다→앵기다’ 등에서의와 같이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가 있다. 이는 앞의 예들에서 보듯이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치조음이나 구개음이 순자

음이나 연구개자음으로 동화되어 움라우트의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로서 움라우트 규칙보다 동화규칙이 먼저 적용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ㄹ을 포함하는 자음군이 개재하는 경우에도 '옴기다→움기다→웅기다→윙기다, 꺼기다→꿈기다→궁기다→꿩기다' 등에서와 같이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도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움라우트의 조건을 만족시킨 결과이다.

4. 움라우트의 공시성과 통시성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움라우트는 통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움라우트는 공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어사적으로 볼 때 움라우트는 형태소 내부에서 먼저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간주된다. 이는 움라우트가 같은 시기에 모든 지역에서 똑 같은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현대국어에서의 움라우트는 개별 방언과 세대에 따라 그 실현 양상을 달리하여 노년층(70세 이상)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나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실현되어 매우 생산적인 규칙으로 간주되지만 중년층 이하에서는 생산성을 잃어 형태소 내부의 환경에서만 일부 어휘에서 유지되고 있을 뿐이고 형태소 경계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현대국어에서의 움라우트가 중년층 이하에서는 통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움라우트는 국어사적으로 '삿기>새끼'와 같이 움라우트된 형식으로 완전히 굳어진 예들도 있으나 '아기~애기, 어미~에미, 아비~애비, 남비~냄비, 손잡이~손잡이, 방망이~방망이' 등과 같이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움라우트형과 비움라우트형이 모두 관찰된다면 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움라우트형인 '애기, 에미, 애비, 손잡이, 방망이' 등은 노년층에서 주로 관찰되고 움라우트 되지 않은 어형인 '아기, 어미, 아비, 손잡이, 방망이' 등은 중년층 이하의 연령층에서 관찰되어 세대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중년층 이하의 화자들은 표준어 교육이나 매스컴 등 언어 외적인 요인(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철자식 발음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층 이하에서 실현되는 '아기'

등도 어휘부에 등록된 것으로 보아 통사부에서 수행되는 어휘 선택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통사론의 소관 사항이 된다. 즉 ‘애기’ 등은 ‘아기>애기’의 통시적인 변화 결과가 어휘부에 등재된 것이고 ‘아기’ 등은 표준어 교육에 의하여 또하나의 어형이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가 언어 사용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일종의 이중언어사용(bilingualism)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년층에서는 다음의 예들에서 보듯이 명사가 주격조사 ‘-이’나 계사 ‘-이-’와 통합되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가 비교적 자유롭게 실현된다. 이는 방언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서북방언과 제주방언, 경기도 북부에서 황해도 를 포함하는 중부방언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언에서 매우 활발하게 실현되는 공시적인 현상으로 노년층에서는 움라우트 현상을 지배하는 규칙이 생산적임을 말해 준다. 그런데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는 노년층에서만 실현되고 장년층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즉 노년층에서는 ‘사람-이→사람이, 몸-이→뭍이, 법-이→법비, ((보기>뵈기)) 방방-이→방뱅이, 떡-이→땀기’ 등에서와 같이 체언에 주격조사나 계사 ‘-이’가 연결될 때 움라우트를 실현시키지만 장년층 이하에서는 ‘사람-이→사라미, 몸-이→모미, 법-이→버비, 방방-이→방방이, 떡-이→떠기’ 등에서와 같이 움라우트를 실현시키지 않는다. 공시적인 현상으로서의 움라우트는 형태소 경계에서 주격조사와 계사 ‘-이-’에 의한 움라우트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노년층에서만 공시적인 움라우트를 인정할 수 있다.

단일 형태소 내부의 움라우트와 함께 ‘먹인다>메긴다, 먹힌다>메킨다, 벗긴다>베긴다, 잡힌다>재핀다’ 등도 공시적인 움라우트로 보아 왔는데 형태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피동·사동접사 ‘-이-, -히-, -기-’의 ‘이’에 의한 움라우트도 통시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야 한다. 사동·피동 접사는 활용어미가 가지는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동·피동 접사에 의한 움라우트는 공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사동사와 피동사는 파생에 의한 것으로, 파생 이전의 동사와 무관한 독립된 어휘 항목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사동사와 피동사는 파생에 의한 것이므로 사동·피동 접사 ‘이’에 의한 움라우트는 공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움라우트를 겪은 사동사와 피동사는 그 자체가 독립된 항목으로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6.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국어의 음라우트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주, 실현 조건과 제약, 발생 시기와 범위 그리고 공시성과 통시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의 음라우트는 명사와 동사의 형태소 내부와 주격조사 '-이'나 계사 '-이-'가 통합되는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현상으로 선행음절의 후설모음 '아, 어, 으, 오, 우' 등이 후행음절의 'i'나 'j'의 영향을 받아 각각 전설모음 '애, 예, 이, 외, 위' 등으로 변화하는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이다. 이 현상은 18세기와 19세기 교체기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ㅁ, ㅂ, ㅍ' 등 순자음이나 'ㄱ, ㅋ, ㆁ, ㅇ' 등 연구개 자음이 개재할 때 활발하게 일어나고, 'ㄴ, ㄷ, ㅌ, ㄸ, ㅅ' 등의 치조음이나 'ㅈ, ㅊ, ㅍ' 등의 구개음이 개재할 때는 음라우트가 제약된다. 그러나 'ㄹ'이 개재할 경우 방언과 어사에 따라 음라우트가 실현되기도 한다.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음장이 개재할 때도 음라우트가 제약된다. 또한 표기법 상으로는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음라우트를 제약하는 자음이 개재해 있더라도 음운현상의 결과 음라우트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음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다.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음라우트와 사동·피동 접사 '-이-, -히-, -기-' 등의 '이'에 의한 음라우트는 통시적인 현상이다. 중년층 이하의 연령층에서 실현되는 비음라우트형은 교육이나 매스컴 등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철자식 발음을 한 결과로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역시 통시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공시적인 현상으로서의 음라우트는 70대 이상의 노년층 화자들이 형태소 경계에서 주격조사 '-이'나 계사 '-이-'에 의해 실현시키는 음라우트만이 인정된다.